

# 2024 추석 가정예배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배비논 같이 흔들리며  
성내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도라 (시편 72:16)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묵상기도 ..... 다 같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 찬송가 430장(통 456장) ..... 다 같이

-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 4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대표기도 ..... 가 족 중

성경봉독 ..... 마태복음 6장 31-33절(뒷면 참조) ..... 다 같이

설교 ..... (옆면 참조) ..... 인도자

축복과 나눔 ..... 서로가 덕담을 나누며 축복해 주세요 ..... 다 같이

찬송 ..... 찬송가 370장(통 455장) ..... 다 같이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기도문 ..... 다 같이



## 대표기도 예문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정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마태복음 6장 31-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야만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설교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계획할 수도 없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뜻을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입을 수 있고 소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큰 결핍 없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31).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권장하고 있습니다(33). 염려 없이 살기도 쉽지 않거니와, 먹고 마시는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사편 128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행통하리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얻은 소득이나 내 삶의 결과물들은 내 노력과 수고의 열매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만큼 얻고 누리고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과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봅시다. 당장에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달려왔지만,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도우신 것과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채우신 것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서서히 물러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 나의 물질, 나의 먹고사는 것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할 힘이 생깁니다. 때로는 불만스럽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날,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지라도, 오늘까지 이미 신실함을 우리 가정 안에 입증하실 만큼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서는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가서, 이제는 앞으로의 일들도 염려하며 근심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주를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데 힘을 쓰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